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강희숙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오로지 영어에만 달려 있다니, 너무 나도 떡 떨어지는 분석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므로 이 광의 모든 어미와 아버들은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어미 아버의 말 같은 것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맘(mom)', '데디(daddy)'를 힘차게 외쳐내는 아이로 키워야 할 일이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대학이건 취업이건 걱정할 필요 없는 유능한 인재로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요, 교육 현안이 영어 능력이라는 인식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불러들여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자라 밤 12시, 1시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교 교육의 모든 목표가 대학입시만을 향하고 있음으로써 성적의 등급이 그대로 인격의 등급을 결정하고 마는 교육 여건 같은 것은 아예 문제의 대열에 끼지도 않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것이 용광로처럼 솟구친다.

## 영어 교육에도 순서가 있다

들에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가 또한 분명히 더 급하고도 긴요한 일이 있음을 알지 말아야 한다. 몰입식 영어교육이나 공교육을 통한 영어 사교육 시장 추방이니 하는 해법이 최선의 해결안이 아니어서는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이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 게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다른 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

이다. 또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달란트(재능)'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저 쉴 새 없이 달리기만 함으로써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한 채 그자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는 집단 최면에서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를 항상시키는 데 피나는 노력들을 할 터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면 계속해서 추월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구사하기 위해 들여야 할 전문학적인 돈을 국어의 보급과 해외 한국학 연구 인력 확보 등에 쓰으므로써 우리 말과 문화의 지위를 높이는 일이다.

사실 그렇게까지 육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100만 명에 유팽하는 국내의 외국인, 10만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이후 여성 및 그 세들이 이 땅에서 윤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확하면서도 유창한 한국어 능력이 필수불가 결한 일일 터, 이러한 문제 해결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대로 그것이 고민 끝에 얻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론의 매서운 질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며 일의 순서를 먼저 생각하였으면 한다. 어찌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이한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남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고로 인한 보상규모가 최대 3천억 원이라면서 피해 어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적은 배상범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민들은 하루하루를 시름에 잠긴 채 보내고 있다.

이번 유류오염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유조선이 스스로 좌초돼 발생한 기존의 경우와는 달리 바지선이라는 사고

은 또 하루빨리 현장에 달려가 피해 어민들에게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피해 보상의 절차와 규모다.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그들의 답답하고 물분에 찬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낭송이다. 하지만, 최소한 법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간파한 채 무모하게 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름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지원단은 추후 제기될 수 있는

## 어민 배상 위한 법률조언 최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배상문제도 위와 같은 특징과 연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완전배상을 실현하는 길이 최선의 사후 해결책이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10명의 변호사는 피해 어민들에게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조언 등을 할 목적으로 '전남 타르피해어민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워크숍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토론했다.

워크숍에서 변호사들은 보상규모가 최대 3천억 원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사고를 유발한 바지선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규모가 무제한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결론도 얻었다. 이런 점들이 피해 어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원단

법률적 쟁점들을 피해 어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충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 산적한 문제점들도 상당수 있다.

사고경위와 관련해 배상주체를 누구로 지목할 것인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은 대표적인 쟁점이다.

손해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감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감정료만도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가 선지원 형식으로 감정료를 대납한 뒤 추후 절차가 종결될 경우 이를 받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하여튼 현 상황에서는 피해 어민들이 동요 없는 상태에서 현명하게 사안을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지원단의 임무이다. 지원단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변호사·전남타르피해 법률지원단 간사〉

## 기초노령연금 산출방식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 기 고

김덕만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란 게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얼마나 높거나 낮느냐에 대한 평가지수로 제약이 적을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57개국 가운데 41위다. 지난해 36위보다 5계단 추락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흥동이 됐다. 이어 싱가포르(2위), 이탈리아(3위), 호주(4위), 미국(5위)의 순위를 보였다. 또 뉴질랜드·캐나다·스위스·영국도 10위권에 랭크됐다.

이를 눈여겨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원회(KICAC)는 국가 예산을 쓰는 중앙 및 지방에 산재한 333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공직 기강이 아직도 느슨해져 있음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됐다.

인사부과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제공 이유로 물은 결과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막기 위해'가 응답자의 62.7%였고, 그 뒤에는 '관행상(17.6%)', '담당자의 요구(5.0%)' 순이었다. 기관별 청렴도에서는 학교미당의 식자재, 수학여행 부문의 부정부패가 여전했고, 이를 바인하가 공무를 다루는 법무, 건설, 식품위생, 의료복지 부문의 관행적 비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

##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자

국가들이 공히 청렴한 선진국이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은 국제부정성기구(TI)가 조사한 2007년 청렴도(CPI) 순위에서 20위권에 있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도는 43위로 경제자유지수처럼 40위권에 처져 있다. 세계경제 11위에 도약한 나라치고 국가품격이 하늘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경제와 부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흔하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항목 중 정책결정 투명성(34위)과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률(26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렴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 뭘까. 또 이를 극복하고 품격있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가.

우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정책 8대 아젠다 중 부패척결을 포함시켰다. 반부패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국가청렴위

석됐다.

둘째로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 처벌의 강화다. 새 정부는 '뇌물 받으면 수수금 액의 최고 50배를 벌금으로 물릴 것'을 검토 중이다. 어느 자자체에서는 뇌물을 받으면 직위제해하고 신고 주민에게는 신고금액의 10배를 주겠다는 극악처방까지 나왔다. 뇌물을 받으면 폐기방식으로 비리유발 요인이 강한 분야에 대해 강력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다. 점에 약하고 서로 봐주기에 익숙해 있다. 좁은 땅에 어리에서 만나자마자 고향을 묻고, 출신학교, 나이, 직장 등을 알아내 로비나 청탁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진정으로 공사가 구분되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를 건설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고 품격있는 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 일본선 여행일정 지연되면 보상 '신선한 충격'

얼마전 일본에서 신선한 경험을 했다. 아버지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스위스 전국 북해도에서 이를 천후 도쿄로 갔다. 도쿄의 명소 하코네를 방문했는데 마침 토요일 오후여서 관광객 차량들로 많이 붐볐다.

차량이 밀려들다 보니 아래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날 일정이 3시간 정도 지연돼 숙소에 돌아왔다. 하지만 교통이 막혀 그렇게

온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정종순·광주시 남구 봉동

## 시 설

## 국민 공감하는 정부조직 개편 이뤄져야

전국의 행정학자들이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광주일보가 지난 25~26일 조선대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 등 행정학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52.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는 39.2%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만 옳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교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반발과 논란만 불러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세제적 추세로 분명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 해도 그 기능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 자르듯 조직을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조직은 오히려 국정의 날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은 만만

## 손학규 대표의 '변화·쇄신 공천' 주목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27일 "호남에서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에 대한 지지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을 시사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8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지지해준 층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옳다고 본다. 지역별로 경쟁권에 실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통합신당 후보를 선택한 호남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범여권에 시급한 것은 개혁과 쇄신이지만 그런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호남에 몰리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거듭금 청탁 인과 전·현직 장·차관들까지 수도권 등을 의연하고 호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

## 無等鼓

2003년 홍콩의 유명배우 장귀룡(張國榮)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의 자살을 믿지 않았다. 자살 직후 떠온 과정이 바로 '살해설'. 장귀룡이 실제로는 살해됐고 경찰이 이미 범인을 제보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들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터무니 없었다. 한 네트즌이 자신이 창작한 시나리오를 불로그에 올린 것이 일과만파로 변진 것으로 판명됐다.

괴담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빠놓을 수 없다. 1977년 사망한 엘비스는 지금도 열성 팬들 사이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의 사망 직후 떠온 과정이 바로 '엘비스 생존설'. 그럴듯한 편리를 조합한 생존설은 사망이란 명백한 사실을 암도 했다. 어찌됐든 엘비스는 지난해에도 죽은 뒤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 랭킹 1위를 고수했다.

지난해 한국사회를 뛰집어놓았던 신장아 사건의 백미는 '신장아 누드 사진'

〈오주승 사회부장 jsoh@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